

“교육은 대만불교 발전의 밑거름”

조계종 전국 승가대학 교직원 스님들이 대만불교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5월 26~29일 불광산사(佛光山寺)와 중대선사(中台禪寺), 법고산사(法鼓山寺)를 찾았다. 스님들은 교육 과정과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한국 승가대학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인간불교’ 시작은 교육에서

26일 까오슝(高雄)에 도착한 60여명의 조계종 교직원 연수단은 곧바로 불광산사를 찾았다. 도갑원장 혜이주안(慧轉) 스님은 “불광산사는 3대 교육체제로서 승가교육, 사회교육, 신도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불광산사에는 남녀 불학원이 따로 있으며, 출제가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있다. 불학원 신입생의 99%가 재가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제가에 대한 구분이 없다보니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하며 또 재가자의 80~90%는 불학원 과정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출가하게 된다고 한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조계종 교직원 연수단 대만 불교 현장 탐방 외국어·인터넷 교육 등 현대화 시스템 도입

영어와 일어는 물론 인터넷 불학원에 개설돼 있다. 외국인 중에서도 불학원에 입학해 언어 과정을 마치고 입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백양사 승가대학 학장 법광 스님은 “전통 강원의 틀을 극복하고 외국어 교육 등에서 현대화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석사 강사 원산 스님도 “교리뿐만 아니라 계율 교육에도 철저하기 때문에 불광산사에 많은 불자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승가교육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계불교교육단지를 꿈꾼다

다음날 연수단은 타이중(臺中)에 있는 중대선사를 찾았다. 중대선사에서는 현재 300

여명의 학생이 불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 100여곳의 선 수행센터 설립해 수행중심 도량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불학원은 4년제로 운영되며, 3개 도서관에 10만권이 넘는 책을 비치해 스님과 학생들은 물론 불자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해 9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하기도 했다.

셋째날 찾은 진산(金山)의 법고산사 역시 불교교육이 우선이었다. 법고산사는 ‘세계불교교육단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듯이 8만평 부지에 사찰 자체를 거대한 대학캠퍼스 같이 조성해 놓았다.

법고산사 수좌 웨이민(惠敏) 스님은 “법고산사는 3대 교육 목표로 대학원(승가교육)과 대보편화 교육(사회교육), 대관심 교육(구호봉사 교육)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은 “3개 사찰 모두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과 문화 등 국민들의 마음공부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계종 전통강원 시스템이 결코 대만에 비해 열악하지 않지만, 현대교육 부분에서는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강사 무에 스님도 “조계종도 학인스님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만 불교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불교’에 역점을 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집중대위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만 불교 교육현장을 둘러본 교직원 스님들은 ‘전통과 현대 교육의 조화’라는 화두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만 까오슝, 타이중, 진산=공동취재단

조계종 새 재무부장 범여 스님 문화부장에 수경 스님 임명

조계종 새 재무부장에 범여(前 고창 선운사 주지·사진 원쪽), 문화부장에 수경(삼선승가대 학감) 스님이 6월 1일 임명됐다.

범여 스님은 1963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사서실장,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80년 사미계, 91년 구족계를 수지한 수경 스님은 삼선승가대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범여 스님에게 “경험이 있으니 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수경 스님에게 “여러 부장스님들과 의논해야 힘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남동우 기자



한일 불교교류회 한국과 일본측 대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日韓불교교류회 노자와 사무총장-지관 스님

불교문화교류대회 성공개최 ‘맞손’

제2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일한불교문화교류회 사무총장 노자와 스님(진전종 가와사키 평간사 집사장)과 일한불교교류회 이사인 오나베 스님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신인 일한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올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이하 한일불교교류대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자와 스님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양국 불교 우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금강대 신임 이사 6명 선임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이사장 도용)는 5월 29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6명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기 5년의 새 이사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권무원 천태종 참의위원장, 이은윤 금강신문 사장, 김영태 풍곡대 명예교수, 김주식 전 강경고등학교 교장, 이은재 전 총남대 교수 등 6명이다.

중앙전승가강원 입학식 개최

태고종의 중진스님들의 보습(補習)을 위해 설립된 최고 지도자 과정인 중앙전승가강원에 61명이 입학했다.

중앙전승가강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윤산 스님은 “새로운 태고종으로 거듭나는데 주인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몽골 영부인 윤덕 스님 예방 “만복사 건립불사 지원할 것”



천태종 前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5월 30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몽골 대통령 영부인 어철명(O. TSOLMON) 여사와 바트바이라 울란바토르 시장, 바르나사 주한몽골 대사부인의 예방을 받고 천태종이 추진 중인 몽골 만복사 건립불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어철명 여사는 “몽골 외무부 측에 실무 담당자를 배치해 만복사 건립 및 부처님 봉안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덕 스님은 “몽골 정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전기와 수도 등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 몽골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만복사는 2만5000여 평 대지에 몽골 전통 방식인 게르(Ger) 형태의 법당과 요사채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만복사에 봉안될 불상은 몽골 최대 규모인 높이 16m의 입불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조성이 완료돼 7월 중에 만복사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내년 연등축제도 힘써달라”

지관 스님, 조계종 찾은 오세훈 시장에 도움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주로 연등축제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갔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관 스님은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연등축제 진행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연등축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등축제가 진행됐던 동대문 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내년부터 장소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동대문 야구장과 관련된 설계에 들어가 있다. 지하에 역사유적이

있어 서울시안으로는 안 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등과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고민 중에 있으나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올해 연등축제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연등축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할 좋은 기회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연등축제를 서울시 유류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관 스님은 오 시장에게 건 강말씀을 직접 해주며 “(동대문 야구장과 관련된) 가능한 부분만 가능하게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바로 잡습니다 본지 629호 A-5면 ‘부스불교신협 108배 철야정진기도’ 기사 중 108배를 1080배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에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8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총부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월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질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시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게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세,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율곡인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사랑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때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갖길 원하노라.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을지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나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잡아버지러 어머니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처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명이 그토록 조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체의 존재목적이기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시을 압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시을 압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시을 압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상속 받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시여!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훌륭한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소하시어.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독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현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오지어다.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어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